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12월호

Contents

I. 한일경제 동향	2
1. 한일 무역 동향	2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5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6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9
1. 일본 무역 동향	9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12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4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19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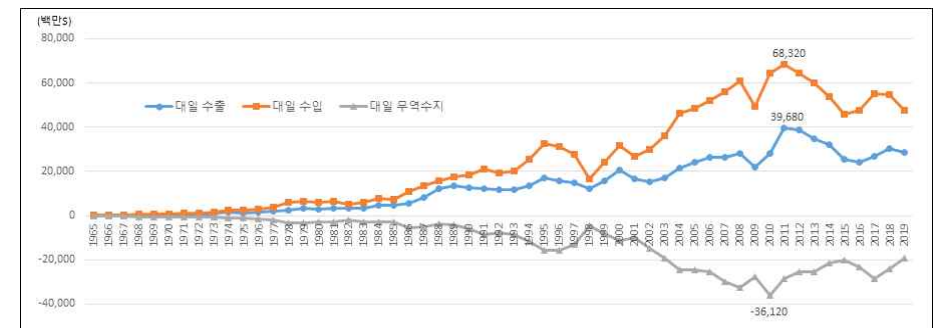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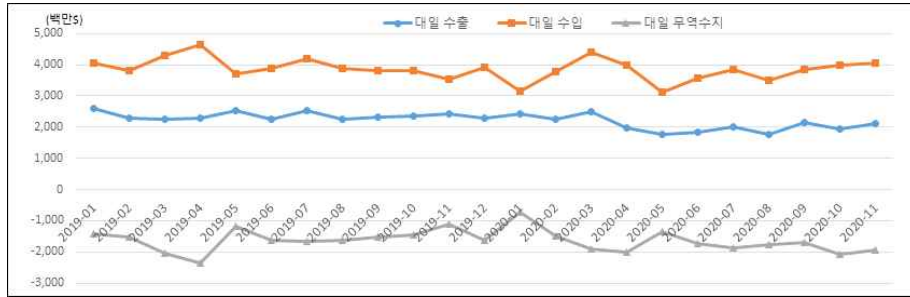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11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19년 7월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최근 2020년 9월에 전월대비 증가, 10월에 감소, 11월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2019년 7월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는데, 최근 2020년 9월, 10월, 11월 모두 전월대비 증가함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월에는 감소, 6월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한일 무역의 2020년 11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 대비 대일(對日)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대일 수입은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1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5,841	4.1	39,937	-1.9	5,904
일본 부분	2,118	-12.1	4,053	15.0	-1,935
일본 비중	4.6		10.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0년 11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4.1%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12.1% 감소하여 21.2억 달러가 됨

- 2020년 11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9%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15.0% 증가하여 40.5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59.0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9.4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6%였고, 수입 경우는 10.1%였음

- 〈표2〉 및 〈표3〉은 2020년 11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두 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반면, 수입은 한 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0년 11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11월(백만\$, %)			2020년 11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411	-11.0	-1,113	2,118	-12.1	-1,935
1	철강제품	337	-4.7	-160	277	-17.8	-93
2	광물성연료	317	-36.2	283	223	-29.7	191
3	정밀화학제품	175	-8.1	-160	199	13.8	-164
4	전자부품	169	-0.3	-332	140	-17.4	-490
5	산업용전자제품	134	22.0	-97	133	-1.3	-108
6	금속광물	81	23.5	43	110	35.8	48
7	농산물	114	16.1	101	104	-8.8	88
8	석유화학제품	138	-17.5	-115	85	-38.2	-231
9	수송기계	96	-11.4	-86	75	-22.2	-145
10	산업기계	77	-7.9	-63	70	-8.6	-95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11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11월(백만\$, %)			2020년 11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523	-18.5	-1,113	4,053	15.0	-1,935
1	전자부품	501	0.1	-332	630	25.6	-490
2	정밀기계	228	-38.3	-162	419	84.1	-380
3	철강제품	497	-12.8	-160	370	-25.6	-93
4	정밀화학제품	335	-23.4	-160	363	8.3	-164
5	석유화학제품	253	-37.0	-115	316	25.0	-231
6	산업용전자제품	230	-11.0	-97	241	4.5	-108
7	수송기계	182	-28.4	-86	220	20.7	-145
8	플라스틱제품	182	-5.1	-113	220	20.7	-157
9	기초산업기계	159	-24.2	-84	215	35.5	-149
10	산업기계	140	-17.8	-63	165	18.0	-95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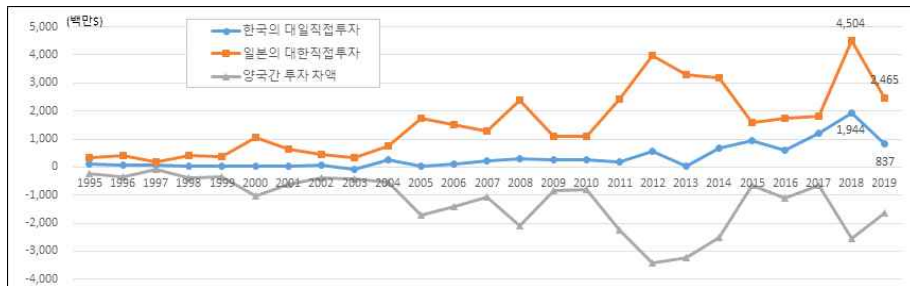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 대비 금속광물이 35.8%, 정밀화학제품이 13.8% 증가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석유화학제품이 38.2%, 광물성연료가 29.7%, 수송기계가 22.2%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 대비 철강제품이 25.6%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정밀기계가 84.1%, 기초산업기계가 35.5%, 전자부품이 25.6% 증가하였음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9,760	4,213	7,678	6,691	6,655	-1,879
한국 부분(억\$)	81	26	179	59	505	97
한국 비중(%)	0.8	0.6	2.3	0.9	7.6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10월 8일, 11월 10일,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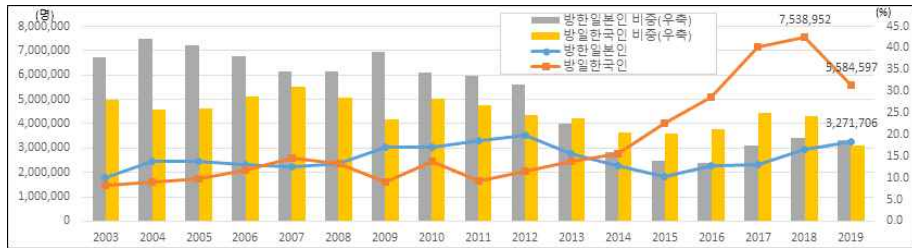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9월에는 7,678억 엔(실행 39,854; 회수 32,176)이었으나, 10월에는 6,655억 엔(실행 33,999; 회수 27,344)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9월 179억 엔(실행 315; 회수 136)에서 10월 505억 엔(실행 657; 회수 152)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7.6%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9월에는 6,691억 엔(실행 30,358; 회수 23,666)이었으나, 10월에는 -1,879억 엔(실행 24,810; 회수 26,688)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음
- 10월 일본 전체의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마이너스였으나,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9월 59억 엔(실행 65; 회수 7)에서 10월 97억 엔(실행 166; 회수 69)으로 증가하였음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일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나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등으로 5월부터는 9월의 전월대비 감소가 있었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바뀜
- 방일한국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00명, 11월 2,800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6월부터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1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11월	2020년11월	증감률		2019년11월	2020년11월	증감률
전체 (재외한국인포함)	1,456,429	61,764	-95.8	전체	2,441,274	56,700	-97.7
방한 일본인	258,522	1,254	-99.5	방일 한국인	205,042	2,800	-98.6
일본인 비중	17.6	2.0		한국인 비중	8.4	4.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11월 방한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 전체 수는 61,764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5.8%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254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5%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11월 17.6%에서 2020년 11월 2.0%로 감소하였음
- 11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56,7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7.7%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8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8.6%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11월 8.4%에서 2020년 11월 4.9%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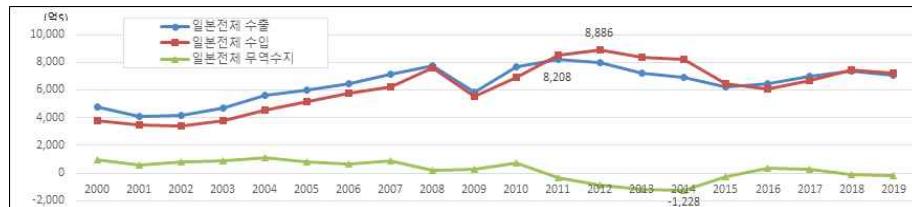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일본 무역의 2020년 11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11월 상황

	2019년 11월	2020년 11월	증감률
수출(백만¥, %)	6,379,008	6,113,662	-4.2
수입(백만¥, %)	6,467,394	5,747,547	-11.1
수지(백만¥, %)	-88,386	366,11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광물성연료, 철강, 자동차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4.2% 감소하여 6조 1,137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1.1% 감소하여 5조 7,475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에는 적자였으나, 2020년 11월에는 3,661억 엔의 흑자로 전환함
- <표7>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1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모두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11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113,662	100.0	-4.2	5,747,547	100.0	-11.1	366,115	-
아시아	3,445,450	56.4	-4.3	3,137,768	54.6	0.5	307,682	-35.8
중국	1,359,470	22.2	3.8	1,684,174	29.3	6.7	-324,704	21.0
홍콩	287,127	4.7	-13.6	7,727	0.1	9.0	279,400	-14.1
대만	393,763	6.4	-12.7	233,195	4.1	-2.2	160,568	-24.4
대한민국	401,937	6.6	3.1	250,357	4.4	-11.9	151,580	43.7
싱가포르	149,398	2.4	-26.7	66,692	1.2	-10.1	82,706	-36.1
태국	252,684	4.1	-9.6	231,936	4.0	4.3	20,748	-63.6
말레이시아	124,262	2.0	-2.0	144,262	2.5	-4.6	-20,000	-18.2
인도네시아	81,905	1.3	-27.9	124,909	2.2	-20.5	-43,004	-1.3
필리핀	83,298	1.4	-19.1	92,323	1.6	-1.3	-9,025	-
베트남	164,067	2.7	4.1	220,111	3.8	6.9	-56,044	15.8
인도	100,311	1.6	22.4	35,682	0.6	-17.8	64,629	67.8
대양주	146,747	2.4	-8.0	323,829	5.6	-22.4	-177,082	-31.2
호주	119,982	2.0	-2.2	286,071	5.0	-23.4	-166,089	-33.8
뉴질랜드	19,173	0.3	0.6	20,395	0.4	-1.3	-1,222	-23.9
북미	1,251,941	20.5	-2.7	697,121	12.1	-12.4	554,820	13.0
미국	1,181,375	19.3	-2.5	593,093	10.3	-13.9	588,282	12.6
캐나다	70,566	1.2	-6.7	103,208	1.8	-3.0	-32,642	6.3
중남미	204,542	3.3	-5.9	244,531	4.3	-3.6	-39,989	10.1
서유럽	690,309	11.3	-1.2	738,048	12.8	-16.3	-47,739	-74.0
독일	158,475	2.6	-7.1	176,060	3.1	-20.0	-17,585	-64.6
영국	101,251	1.7	-7.7	57,053	1.0	-22.3	44,198	21.7
프랑스	50,313	0.8	-14.1	83,184	1.4	-24.0	-32,871	-35.4
네덜란드	114,613	1.9	12.5	23,364	0.4	-25.3	91,249	29.2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26,247	2.1	2.4	149,387	2.6	-28.1	-23,140	-72.7
중동	180,276	2.9	-15.8	380,235	6.6	-45.9	-199,959	-59.1
아프리카	68,150	1.1	-11.9	76,628	1.3	-9.6	-8,478	14.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6.4%, 수입의 54.6%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였고,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3,077억 엔으로 35.8% 감소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2%, 수입의 29.3%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3,247억 엔으로 21.0% 증가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6.4%, 수입의 4.1%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606억 엔으로 24.4% 감소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6.6%, 수입의 4.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516억 엔으로 43.7% 증가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9.3%, 수입의 10.3%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5,883억 엔으로 12.6% 증가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7.1%, 수입은 20.0%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7.7%, 수입은 22.3% 감소하였음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1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 품목도 감소 품목도 있지만, 수입은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였음

<표8> 일본 무역의 2020년 11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113,662	100.0	-4.2	-4.2	5,747,547	100.0	-11.1	-11.1
1 식료품	75,912	1.2	9.8	0.1	536,476	9.3	-12.7	-1.2
2 원료품	90,225	1.5	10.4	0.1	387,653	6.7	-7.8	-0.5
3 광물성연료	42,886	0.7	-59.9	-1.0	788,327	13.7	-40.2	-8.2
4 화학제품	754,743	12.3	5.5	0.6	619,645	10.8	-9.2	-1.0
5 원료별제품	617,748	10.1	-10.6	-1.2	540,207	9.4	-8.2	-0.7
6 일반기계	1,144,706	18.7	-3.0	-0.6	596,305	10.4	-1.8	-0.2
7 전기기기	1,147,779	18.8	1.0	0.2	1,186,306	20.6	15.0	2.4
8 수송용기기	1,430,615	23.4	-4.5	-1.1	222,416	3.9	-20.6	-0.9
9 기타	809,049	13.2	-10.0	-1.4	870,212	15.1	-6.0	-0.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 경우는 원료품이 10.4%, 식료품이 9.8%, 화학제품이 5.5%, 전기기기가 1.0%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가 59.9%, 원료별제품이 10.6%, 기타가 10.0%, 수송용기기가 4.5%, 일반기계가 3.0% 감소하였음
- 증가기여도가 가장 높은 화학제품의 경우 세부적으로 유기화합물이 8.1% 감소한 반면, 의약품과 플라스틱이 각각 4.7%, 8.3%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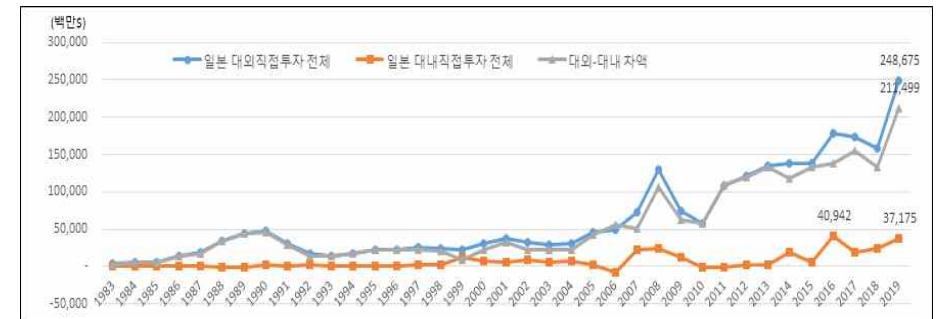
- 수입 경우는 전기기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감소하였는데, 감소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광물성연료가 40.2%, 식료품이 12.7%, 화학제품이 9.2% 등으로 감소하였음
- 광물성연료에 속하는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석탄의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2%, 20.1%, 37.1%, 33.2% 감소하였음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10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는 6,655억 엔으로 플러스였으나, 대내직접투자는 -1,879로 마이너스였음

<표9>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10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6,655	100.0	-1,879	100.0
아시아	1,488	22.4	-1,534	81.6
중국	680	10.2	-410	21.8
홍콩	-95	-1.4	-1,180	62.8
대만	162	2.4	5	-0.3
한국	505	7.6	97	-5.2
싱가포르	-607	-9.1	334	-17.8
태국	308	4.6	-392	20.9
인도네시아	176	2.6	6	-0.3
말레이시아	132	2.0	1	-0.1
필리핀	70	1.1	0	0.0
베트남	236	3.5	0	0.0
인도	-18	-0.3	4	-0.2
북미	585	8.8	-685	36.5
미국	240	3.6	-692	36.8
캐나다	345	5.2	7	-0.4
중남미	1,190	17.9	-1,430	76.1
대양주	-4	-0.1	-286	15.2
호주	17	0.3	-277	14.7
뉴질랜드	-33	-0.5	1	-0.1
유럽	3,155	47.4	2,057	-109.5
독일	46	0.7	98	-5.2
영국	441	6.6	887	-47.2
프랑스	198	3.0	183	-9.7
네덜란드	708	10.6	1,086	-57.8
중동	-24	-0.4	-1	0.1
아프리카	265	4.0	0	0.0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6,655억 엔(실행 33,999; 회수 27,344)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유럽(47.7%), 아시아(22.4%), 중남미(17.9%), 북미(8.8%), 아프리카(4.0%)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대양주와 중동은 실행보다 회수가 더 많아 순투자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유럽 경우는 네덜란드(708억 엔), 스위스(485억 엔) 등, 아시아 경우는 중국(680억 엔), 한국(505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1,879억 엔(실행 24,810; 회수 26,688)으로 마이너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유럽 경우는 플러스였으나, 여타 지역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유럽 경우는 네덜란드(1,086억 엔), 영국(887억 엔), 스위스(510억 엔) 등, 아시아 경우는 싱가포르(334억 엔)로부터 투자가 많았음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12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12월 22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1-3월	2020년 4-6월	2020년 7-9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6	0.3	-2.0	-10.3	-5.7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2.3	0.8	0.4	-3.4	-2.9	-3.0	-1.9	-1.3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3.9	-5.8	-5.7	-12.7	-19.8	-21.4	-22.8	-1.8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6.3 -9.9	80.0 -12.4	82.1 -10.1	81.9 -9.1	81.5 -9.9	80.2 -8.3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2.5	4.2	7.0	-5.4	11.5	11.1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5.5 -7.0	-25.1 -4.8	-14.9 -11.4	-14.9 -11.6	-7.7 -8.4	-1.6 -5.7	P -4.0 P -2.4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4.5	-19.8	-12.8	-13.8	-9.0	-3.0	
<법인경상이익-계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28.4	-46.6	-28.4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2,164 12.9	1,837 -11.4	2,021 -7.3	667 -1.6	565 -19.5	624 -20.0	569 -21.7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4	2.8	3.0	3.0	3.0	3.1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0.5 0.5	-2.3 0.1	-0.8 0.2	-0.6 0.2	-0.8 0.0	-2.1 -0.4	P -2.2 P -0.9
<금융> 넷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1,808 108.79	20,784 107.61	22,906 106.20	22,901 106.04	23,306 105.74	23,451 105.24	25,384 104.40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11월 및 12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일부 답보 상태도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10월에 전월 대비 2.1% 증가함
 - 실질고용자소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소비자 심리는 회복에 답보 모습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재화 분야에서는 전향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보임
 - 신차판매대수는 회복되고 있음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로 되어 있음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회복되고 있던 국내여행에서도 감염증 확대에 따른 하방 압력이 보임
 - 외식은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답보 상태가 나타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소비는 일부 답보 상태도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음
 - 향후 방향에 관해서는 감염증 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염증 확대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7-9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7-9월기는 전기 대비 1.2%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 감소, 비제조업이 1.3% 감소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12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전체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어느 쪽도 감소가 예상됨
 -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10-12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계획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감소가 멈추고 있는 중이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 불투명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최근 보합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10월은 전월 대비 1.6% 감소하여 연율 80.2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택전 총판매호수는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는 건실하게 추이하고 있음
 - 10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0.1% 증가, 11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 대비 1.4% 감소, 10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2.9%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건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무역·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됨
 -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아메리카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EU 및 기타 지역 쪽 수출은 회복되고 있음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11월의 방일 외국관광객 수는 전년동월 대비 97.7% 감소하였음
 -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감소가 멈추고 있음
 - 무역·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어 있음
 - 10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10월에 전월 대비 4.0%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0월에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1월은 전월 대비 2.7% 증가, 12월은 전월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새로운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 폭에는 축소가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도산 건수는 최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제보’ (7-9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7-9월기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28.4% 감소, 전기 대비 33.7% 증가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観(12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13.2%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4.1%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43.4%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25.3%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업중합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12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3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최근 완만하게 감소하여 10월 624건, 11월 569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10월 783억 엔, 11월 1,021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0월에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하여 3.1%로 됨
 - 노동력 인구,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유효구인배율은 최근 보험권내로 되어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보험 상태이며, 소비자물가도 보험 상태임
 - 11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 대비 0.0%로 되었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대체적으로 보험 상태임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험 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11월에는 전월 대비 4.0% 포인트 하락하여 68.4%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험권내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상승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6,500엔대에서 26,800엔대까지 상승한 후 26,400엔대까지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26,700엔대까지 상승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4엔대에서 103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3%대에서 -0.02%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업중합이 보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 대비 6.0%(11월) 증가하였음
 - 머니미터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16.5%(11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9.1%(11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0년 12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12월 22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스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과 경제활동을 양립시키면서 고용의 확보, 사업의 계속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COVID-19로 인해 명확해진 디지털화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서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된 큰 방향성과 중점과제를 따르면서, 성장전략회의에서 개혁을 구체화함
-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 및 제2차 보정예산의 신속한 실행에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또 이를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그린 및 디지털을 비롯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2월 8일 각의 결정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원활하게 또 착실하게 실행함
 - 일본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안(개산)(12월 15일 각의 결정)을 편성함과 더불어 ‘202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12월 8일 각의 결정) 및 ‘2021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 (12월 18일 각의 양해)에 기반하여 2021년도 정부 예산안(개산)(12월 21일 각의 결정)을 마련하였음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12월 18일 계속적으로 기업 등의 자금운용을 지원해 간다는 관점에서 COVID-19 대응 자금운영 지원 특별 프로그램의 연장 등을 결정함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동향

- 일본 정부는 12월 1일에 경제정책 방향성을 나타내는 실행 계획을 정리하였는데, COVID-19 재난에 따른 ‘새로운 일상’에 대응한 기업의 구조 개혁을 보조금 등으로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닛케이신문, 20.12.1.)
 - 업태 전환과 사업 재구조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탈탄소 사회의 실현과 디지털화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도 예산을 돌려 경제 회복을 도모함
 - 실행 계획은 2020년 7월에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시책이 됨
 - 스가 총리는 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최대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다. 향후 모든 대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성과를 일하는 사람에게 분배함으로써 일하는 국민의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 업태의 전환과 사업의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보조 제도의 정비’를 검토한다’고 명기함
 - 현재,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엔을 급부하는 경제산업성의 ‘지속화 급부금’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2021년 1월까지 접수를 끝낼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조금은 사실상의 후속 제도가 됨
 - 기존 보조금에 대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함
 - 일본 국내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으므로, 실행 계획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했음
 - 스가 총리가 온난화 가스의 일본 국내 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내건 것에 대응하여 실행 계획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음
- 도쿄도는 2020년 12월 14일 COVID-19 대책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시간단축 요청을 기존 17일까지에서 2021년 1월 11일까지 연장할 방침을 결정(닛케이신문, 20.12.14.)
 - 영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요청에 따른 중소 사업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50만 엔의 협력금을 지원함
 - 일본 정부의 관광 수요 환기책 ‘Go To Travel’에 대해서는 시간단축 요청 연장에 맞추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도쿄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의 이용을 일시정지하며,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도쿄도를 출발지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자속을 요청하고 28일 이후는 일시정지함

-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5.2%로 하향 조정(아사히신문, 20.12.18.)
 - 1995년도 이후 가장 낮으며, 2019년도의 -0.3%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됨
 - 일본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성장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7월 시점 -4.5%에서 하향수정한 것으로, COVID-19 재난의 제3파로 인해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국내총생산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음
 - 2021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침체 반동과 대형 경제 대책의 효과로 1995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4.0%의 성장을 전망함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탈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프라이싱(CP) 추진에 나섬(닛케이신문, 20.12.21.)
 - 스가 총리는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음
 - 탄소세 등 배출량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강화하여 기업에 배출 억제를 촉구함
 - CP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 정도 등에 따라 석탄이나 원유 등 대상별로 배출량당 대가를 명확히 하는데, 주된 지불방법은 탄소세나 배출량 거래이며 CP가 그 전제가 됨
 - 배출량 거래는 미리 정해진 배출량 상한선을 넘는 기업이 초과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배출량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내는 제도임
 - 산업계나 소비자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지가 과제인데, 기업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으로 전가하면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배출 억제에 대응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 가격 전가를 완화하고 개인의 과도한 부담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 COVID-19 변이종 발견으로 전 세계로부터의 입국 완화 조치 중단(아사히신문, 20.12.27.)
 - 일본 정부는 COVID-19 변이종 발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취해온 출입국 완화책을 12월 28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26일 밝힘
 -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 세계로 제외 대상을 확대시킴
 - 중단 기간은 2021년 1월말까지로 감염 상황에 따라 연장할 가능성도 있음
 - 한중 등 11개국·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왕래 구조는 유지함
 - 12월 30일부터는 변이종이 발견된 국가에서 귀국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출국 72시간 전까지 음성을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검역 체제도 강화됨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봉강 반덤핑 과세에 시정 권고(요미우리신문, 20.12.1.)
 -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부과하는 반덤핑세에 대해 WTO 패널은 과세사유가 불충분하다며 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음
 -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이 볼트와 자동차용 밸브 등에 사용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세(15.39%)임
 - 일본 정부는 특수강 중심의 일본산은 한국산과 경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재검토를 요구해 2018년 가을에 WTO에 제소했음
 - 보고서는 한국 측 설명에 대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칠 합리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지적했음
- 징용 자산 매각 의견 요구 심문서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일본 측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NHK, 20.12.9.)
 -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 자산 매각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12월 9일 0시 서류가 일본 측에 도착했다고 보았음
 - 태평양전쟁 당시 징용문제로 대법원이 피고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로 일했다고 고소한 한국인 4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함
 - 법원이 지난 10월 일본제철의 국내자산 매각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으며, 2개월 후인 9일 0시를 기해 자산 매각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심문서 등이 일본제철 측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었음
 - 이에 앞서 한국 법원은 자산 압류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했고, 일본제철은 즉시항고를 하며 절차 금지를 요구한 바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원에 대한 배상 판결에서 공시송달 효력이 12월 29일 발생(아사히신문, 20.12.30.)
 -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 압류 결정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효력이 12월 29일 발생했음
 -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압류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한다’는 의견을 냈음
 - 원고 측은 배상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국내에 보유하는 2개 상표권과 6개 특허권을 모두 압류해달라고 대전 지법에 신청했고, 지법은 이 회사에 압류 결정을 전달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왔음
 - 미쓰비시중공업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심사하는 동안에는 압류된 자산은 매각되지 않으며, 향후는 법원이 매각 명령을 언제 내릴지가 초점이 됨
 - 원고의 배상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의 현금화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식품 폐기물로 만들어진 연료를 이용한 비행(NHK, 20.12.1.)
 -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하네다공항에서는 일본 국내 최초로 식품 폐기물로 만들어진 연료를 사용한 여객기가 미국 휴스턴을 향해 떠났음
 - 일반 연료에 비해 비용은 비싸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다고 함
 - 핀란드 회사가 만드는 이 연료의 주원료는 육가공 과정에서 버려졌던 비계와 다 쓴 식용유로 제트 연료로서의 국제 규격에 부합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는 연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항공사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항공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옷이나 페플라스틱 등 가정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제트 연료임
 - COVID-19의 영향으로 항공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비싼 연료의 도입을 단행한 배경에는 세계에서 진행되는 ‘탈탄소’의 움직임에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음
 -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음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1년부터 국제선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양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게 되었음
 -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제트 연료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양산화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 전체로도 손에 꼽을 정도여서 ANA는 실적을 쌓아 연료 업체와의 관계를 강화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ANA와 일본항공은 11월에 연달아 공모 증자를 발표했는데, 확보한 자금은 채무 상환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보잉 787과 에어버스 350과 같은 신형 기기의 구입에도 충당됨
- 해상풍력발전 분야 세계 최대기업의 오스테드(본사 덴마크)가 일본의 육상풍력발전 대기업인 일본풍력개발, 유라스에너지 두 회사와 공동 운영할 방침을 굳혔음(산케이신문, 20.12.7.)
 -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는 신법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공모한 착상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오스테드(본사 덴마크)가 일본풍력개발, 유라스에너지와 공동 운영할 방침을 굳혔음
 - 발전기의 토대를 해저에 직접 세우는 착상식은 풍차의 대형화가 가능함
 - 스가 총리는 3일 국제회의에서 “해상 풍력 발전 등 해양의 힘을 활용해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처를 주도한다”라고 강조했고, 4일 기자회견에서는 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금 창설을 밝히는 등 환경 대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키워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

- 3사는 이러한 정부의 의향에 대응해 시설 건설이나 부품 조달 등에서 현지 기업 참가를 최대한으로 추진해 산업 육성을 지지할 방침
 - 이번 공모 접수는 내년 5월까지로, 내년 10월경에 사업자를 선택해 수년 내의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함
 - 정부는 약 2만 킬로와트(2019년)인 해상풍력 발전능력을 2030년까지 1,000만 킬로와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도요타자동차 12월 9일 연료전지차(FCV) 신형 미라이 출시(요미우리신문, 20.12.9.)
- FCV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궁극적인 에코카로 불리지만 수소 보급 거점의 정비 등 과제도 많음
 - 도요타는 상용차도 포함한 양산 체제를 정돈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함
 - 탑재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을 이전 모델보다 20% 늘려서 항속거리를 650km에서 850km로 늘렸음
 - 가격은 가장 저렴한 등급이 세금을 포함하여 710만 엔부터 시작하는데 이전 모델보다 저렴해졌으며,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면 약 570만 엔에서 약 663만 엔에 구입할 수 있으며, 지자체 보조금을 활용할 경우 더 저렴해 짐
- 전기자동차 차세대 기간기술로 가장 중요시되는 ‘전고체전지’ 실용화 움직임이 민관에서 가속되기 시작(닛케이신문, 20.12.10.)
- 도요타 자동차는 전고체전지 탑재차를 2020년대 전반에 판매할 방침으로 일본 정부도 수천억 엔 규모의 지원을 검토함
 - 전고체는 현재 주류인 리튬이온전지 전해액 대신 고체인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발화 등의 리스크를 저감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외에도 전지 용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밀도가 수배로 높아짐
 - 개발에서는 도요타가 선행하고 있어 보유 특허수가 천 개를 넘어 세계 톱으로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앞서 2020년대 전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닛산자동차도 2028년까지 자체 개발한 전고체전지를 실차에 탑재할 계획임
 - 일본 국내 소재업체들도 주요 부재의 생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미쓰비시화학은 전류의 흐름을 좌우하는 고체 전해질 생산에 나서며, 이데미쓰홍산도 자동차용을 염두에 두고 고체 전해질의 생산 설비를 치바현 이치하라시 사업소에 신설하여 2021년부터 가동시키며, 스미토모화학도 관련 부자재 개발에 나섰음
 - 탈탄소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상태로는 차량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전고체 개발을 지원함

- 게이세이 전철은 입국자 전용차량 운용을 개시(산케이신문, 20.12.28.)
- 게이세이 전철은 12월 28일 해외에서 일본에 도착한 귀국자나 입국자를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우에노로 운송하는 특급 스카이라이너의 전용 차량 운용을 시작했음
 - 귀국자들에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착 후 자가용이나 전세 차량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부담이 큰 것이 과제였음
 - 게이세이 전철에 의하면 하루 15편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두 차량을 전용화하고 운행 시 마다 소독하며, 일반객과 간격을 두기 위해 옆 차량을 비움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하카타-부산 고속선 1척으로 줄일 예정이며, 운영 중지중인 비틀의 매각을 검토 (아사히신문, 20.12.1.)
- JR큐슈 고속선이 보유한 고속선 비틀호(191인승) 3척의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COVID-19의 영향으로 3월부터 하카타-부산은 운항을 쉬고 있어서 COVID-19 수습 후에도 승객의 회복을 전망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 향후 하카타-부산 운항을 재개할 경우 새로 만든 퀸비틀(502인승) 1척 체제로 함
 - 비틀은 하카타-부산 간을 약 3시간여 만에 연결해 하루 최대 3번 왕복 운행했으며, 코로나 재난 이전에는 많은 한국인 방일객도 이용했음
 - 동사에 의하면 고속선의 운항 회사 등에 매각을 상담하고 있으며, 매각을 통해 운항 체제를 재검토하고, 수지 개선을 도모함
 - 퀸비틀은 당초 7월에 하카타-부산에 취항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잠정적으로 일본 국내 관광용으로 전용할 예정임
 - 퀸비틀이 하카타-부산에 취항할 경우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대한 기항은 취소하는데, 비틀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쇼와전공 머티리얼즈(구 히타치화학)이 한국과 대만에서의 반도체 관련 재료 생산 강화를 발표(닛케이신문, 20.12.9.)
- 쇼와전공 머티리얼즈는 2023년까지 총액 200억 엔을 투자하여 실리콘 웨이퍼의 연마제와 배선 기판 재료 공장을 신설
 - 웨이퍼 연마제 ‘CMP 슬러리’에 관해서는 2021년 10월 한국 안산시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대만 타이난시의 거점 능력도 확충함
 - ‘CMP 슬러리’는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해 생긴 요철을 평평하게 할 때 사용하는데, 반도체 성능 향상으로 수요증가를 전망할 수 있다고 함

- 한국계 음식택배 ‘푸드네코’가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음식택배 대행서비스에 본격 진출(아사히신문, 20.12.8.)
 - 푸드네코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와브라더스의 100% 자회사의 일본 브랜드임
 - 시험 영업을 거쳐 도쿄도 내 시부야, 미나토, 신주쿠에서 2020년 12월 8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
 - 푸드네코는 배달원의 연수 및 교류, 휴식 장소가 되는 ‘라이더 센터’를 도쿄 요요기에 설치했음
 - 푸드네코는 기존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서비스요금이나 근거리 배달료를 무료화하고 등록점의 수수료도 낮게 억제한다고 하며, 또한 수요 예측의 알고리즘도 활용한다고 함



출처: <https://foodneko.com/>

- 한국 현대자동차가 2022년 일본 시장에 재진출(닛케이신문, 20.12.19.)
 - 현대자동차는 2022년에 일본 시장에 연료전지차(FCV) ‘넥소’를 투입하며, 판매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 완료하였음
 - 전기자동차(EV)에서는 한국 등에서 판매하는 다목적 스포츠차(SUV)형의 ‘코나·일렉트릭’ 외 2021년 이후 발매하는 EV 신모델의 일본 투입도 검토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일본 시장에 2001년 진출했으나, 지명도나 브랜드파워가 약해서 고전하다가 2009년에 철수하였음
 - EV나 FCV 구입 시의 보조금 인상 등 일본 정부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책도 재진출에 효과적일 것임
 - 현대자동차는 2019년 세계 판매대수가 719만대(기아자동차 포함)로 세계 5위이며, FCV에서는 75% 정도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여 수소차 ‘미라이’를 판매하는 도요타자동차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